

# 전남도,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드라이브’

### 무안 4만3천세대에 홍보 리플릿 발송...주민 강연회도 준비 6개 읍·면 소음 피해 없다는 점 강조 이주·보상 대책 소개

지난달 24일 무안지역에서 처음으로 군공항 이전 소음 대책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전남도가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통합이전 관련 리플릿을 지난날 30일 무안지역 4만3천세대에 일괄 발송

했다. 리플릿은 늦어도 이번주 내에 무안 지역 모든 세대에 도착할 예정이다. 무안국제공항을 배경 사진으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통해 전남 서남권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란 제목의 리플릿은 무안군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와 대책에 초점을 맞춰 제작됐다.

▲군공항 이전 시 과도한 소음 피해 우려는 NO ▲소음 피해 대책 ▲예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시 장점 ▲대한민국 지키는 군공항이 기피시설? NO 등 5개 소재목으로 무안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소음 관련 내용과 통합 이전의 필요성, 지역 발전 전략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무안군 지도와 광주시 지도를 비교해 소음 피해 지역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또 무안지역 읍·면과 무안공항간 거리를 광주군공항 상황에 적용해 삼함읍·일로읍·해제면·몽탄면·

청계면·무안읍 등 6개 읍·면의 소음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무안공항과 삼함읍은 19km 떨어져 있는데, 광주 군공항에서 19km 거리에 있는 지역은 화순 전대병원으로 소음 피해가 전혀 없는 곳이다. 또 일로읍(18km), 해제면(15km), 몽탄면(12km), 청계면(10km), 무안읍(8km) 등의 무안공항 이격 거리를 광주시에 적용할 경우 각각 화순 도곡면, 나주 영산포, 조선대, 나주 남평읍, 광주 진월동 등으로 군공항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이와 함께 소음 피해 대책으로 현 광

주공항 대비 1.9배 확장해 군공항이 건설되는 만큼 소음 영향권 내 거주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투비행 훈련 횟수·시간은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주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영업 보상 등 완료 후 이주를 지원하는 한편,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 보상 후 신도시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음 피해 지역 내 기존 거주지에 거주를 원한다면 소음 피해 보상금 등 지급 방침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 소음 대책 토론회 이후 무안지역 여론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군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와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음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착공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2일 첫 삽을 떴다. 이날 나주 공산면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욱 전남도 의회위원장, 김대중 도교육감, 윤병태 나주시장, 의병 관련 단체장, 의병장 후손,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민선 7기 김영록 지사 취임 이후 2019년 2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정신을 기리며 임진왜란 전후 의병 활동뿐 아니라 한말 의병 투쟁도 함께 조명하자’는 의미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422억원을 들여 2만2천3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 연면적 6천991㎡로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박물관 건립을 통해 국가



2일 오후 나주시 공산면에서 열린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착공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 등 내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의 위기마다 수많은 우국지사를 배출해 온 ‘의향(義鄕) 전남’을 알리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

어넣을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의향 전남’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공간이자 대한민국 대표 호국 역사 교육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췌시장 “나-들의 오월로 가는 첫 걸음”

### 5·18 통합조례 공포...18일 대중교통 무료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 통합조례가 지난 1일 시행·공포됐다. 기존 11개로 흩어져 있던 조례를 1개로 통합하고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시장 책무, 진상 규명, 애곡 대응, 시민협력 등 미비했던 내용을 새롭게 정비했다. 광주시는 또 5·18기념일에 오월 광주를 기억하고 광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환대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나-들의 오월이야기’를 주제로 정례초회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공직자들과 5·18통합조례

를 만든 배경·의미 등을 공유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오월의 가치를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준 정다운 시의원과 광주시의회, 이재의씨를 비롯한 전문가, 민주인권평화국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통합 조례는 나-들의 5·18로 가는 첫걸음이다.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오월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50주년이 되는 2020년 5·18은 세계적 오월민중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 “용산-여수 간 30분 이상 단축돼야” 촉구

### 道 입장문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 사업 진행 보류 다행”

전남도는 2일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용산-여수 간 단 10분 단축될 당초 사업의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

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 전라선은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55분 걸리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며 “낙후된 전라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사업비 3조원 규모의 고속화

신청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막다른 절박함에 최근 전라선 주변 시·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당선자 등 다수의 의견을 모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전라선 고속화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시간 단축 효과가 큰 고속철도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가 이날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를 결정했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이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앞으로 주변 시·군과 함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 광주시·국무조정실, 영향평가 개선 논의

광주시는 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어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2022년 8월 출범했다.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과 지원국 등 14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영향평가, 빛공해 영향평가, 상권 영향평가, 도로 굴착 심의 및 관련 주요 추진 내용,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종

영향평가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시는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했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실무부서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와 현실 규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

# 국립 5·18 민주묘지 즉석 시 낭송회

■ 일시: 2024년 5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국립 5·18 민주묘지 역사의 문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문인협회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 즉석 시 낭송회’를 개최합니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하고 광주문인협회 주관, 광주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5월25일 오후 2시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 좌측 역사의 문 공간에서 열리는 즉석 시 낭송회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문인협회 시낭송회원들이 5·18과 관련된 시를 낭송합니다. 2부에서는 현장 참배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 안팎의 접수를 받아 시집에 수록된 시를 선택해 낭송합니다. 낭송에 참여하는 참배객에게는 광주생생카드 3만원권과 시집을, 객석 참석자에게는 시집을 증정합니다. 광주시민과 광주매일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최: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 주관: **광주문인협회** | 후원: **광주광역시**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 광주문인협회(062-227-0811)**